

# 곧 개학... 학교 현장 코로나19 방역 철저

### 도교육청, 개학 대비 방역확인추진단 내달 3일까지 운영 방역 추진 관련 건의사항 청취·방역 우수사례 공유키로 전면 등교 방역 지원 위한 도우미 11월까지 추가 채용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학기 안전적 학사 운영을 위한 코로나19 학교 방역 준비 현장 확인에 나선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 47교, 중학교 152교, 초등학교는 291교가 이번주(18~20일) 개학에 들어간다. 또 다음주에는 28일 초등학교 89교, 중학교 82교, 고등학교 23교 등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 2학기 등교가 시작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튜정섭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개학 대비 방역확인추진단'을 오는 9월 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도내 14개 교육지원청 소속 유·초·중·고교에 대한 학교 방

역 준비 상황을 확인한다. 이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방역 준비가 미비한 학교와 지원이 필요한 학교 상황을 파악해 개학 전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주요 확인 내용은 방역 준비, 취약요소 보완,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현장의견 수렴 등이다. 방역 준비 항목에서는 교내 이동 동선·거리두기, 방역인력 및 물품, 방역지침 숙지, 환기·소독, 공용공간 관리, 구성원 간 역할분담 등을 점검한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시 대응 방안, 학부모에게 상황 안내 채널 마련,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발생 시 대응 계획 수립 여부도

확인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방역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방역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면 등교 방역 지원을 위한 방역활동도우미를 추가 지원한다. 채용기간은 8~11월까지 3개월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방역활동도우미는 발열체크, 소독,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안내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역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 코로나19 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현장 확인은 2학기 전면 등교시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5-1판을 전 교직원에게 충분히 숙지하고, 2학기 등교 재개 이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학교가 올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9개의 예비 실험실 창업팀을 선정했다. 사진은 전북대학교 전경.

## '대학의 우수 연구기술, 세상 바꿀 빛으로'

### 전북대, 9개 우수 실험실 창업팀 선정... 최대 6000만원 지원 실험실 창업 지원부터 초기창업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

대학이 가진 우수한 연구기술을 실험실 창업 지원을 통해 발굴·지원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올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9개의 예비 실험실 창업팀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이 기획·관리하는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2018년 전북대를 비롯한 전국 5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전북대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3년째 운영되고 있다.

올해 사업에 신청한 11개의 실험실 중 1·2차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9개의 우수 실험실이 선정됐다. 협약을 통해 실험실 당 최대 6천만 원의 후속 연구개발비 지원 및 창업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선정된 실험실은 ▲김종원 교수(주거환경학과)의 주거소재과학실험실, ▲김민걸 교수(의과대학) 약리화합실험실, ▲김학용 교수(나노융합공학과) 나노소재연구실, ▲박승문 교수(생명공학부) ERT, ▲이재석 교수(전기공학) 전자기기제어시스템실험실, ▲허수영 교수(수의학과) 외과실험실, ▲김태완 교수(전기공학과) 첨단소재 및 나노전자소재, ▲김형성 명예교수(전자공학부) 지능형로봇실험실 등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비즈니스모델 수립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캠프,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투자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재학생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아카데미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대는 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매년 우수 실 선정·지원을 통해 총 17개의 실험실 기업 설립을 지원했고, 7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학내 실험실 창업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엔 지난해 선정 실험실 중 6개 실험실이 초기 창업자를 돕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초기창업패키지' 연계 트랙에 선정돼 예비 창업단계의 실험실 창업에서 초기창업 지원까지 연결되는 유기적 창업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권대규 전북대 창업지원단장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의 우수 연구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실험실별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고교학점제 활성화·공동교육과정 운영

### 도교육청, 군산대와 실무 협약 올 하반기 공동교육과정 선정 3개 분야에 한해 시범 운영

군산대학교는 지난 17일 군산대학교 본부 제1 소회의실에서 전북도교육청과 '고교학점제 활성화 및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실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산대학교 김동익 입학처장과 전북도교육청 조성규 학교교육과정의 주관으로 이뤄진 본 협약은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 협약은 교육부 입시정책 다변화에 따른 고교 및 대학 현장의 입학전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 결과 양 기관은 고교학점제 관련 공동교육과정 개설, 고교-대학 연계 주말 강좌 운영, 고교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및 운영 등에 있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본 협약과 관련, 군산대 김동익 입학처장은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 보장과 특기·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군산대학교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여 고교학점제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산대학교와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에 공동교육과정 3개 분야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장은성기자·군산=남현봉 기자

## “핀란드 혁신교육 도입 전북교육 선진화 할 것”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 학교장 선출보직제 학교 자치 내실화·교육장 지역 추천제 도입 제안**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전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는 1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핀란드의 혁신교육을 통해 전북교육을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교육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차 대표는 “복합적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는 혁신교육을 통해 4회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하면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교육, 경쟁보다 협력, 교사의 리더십과 전문성 배양을 통해 전북교육을

최고의 교육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사가 본연의 수업과 생활 지도에 매진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 ▲학교 자치 내실화 ▲학교장 선출보직제 실시 ▲시군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로 기능 전환 ▲교육장 지역 추천제 도입 등 제시했다.

차상철 대표는 “전북교육에 혁신교육을 도입한 설계자로서 변화하는 시대에 전북교육이 혁신적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복합적 작은 나라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교육을 만든 것처럼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1등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메타버스 AI 홈트 기기 사업화 '박차'

### 전북대, 지식클러스터 PLUS 사업 통해 피트니스 기기 개발 2단계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인 설립 기술사업화 추진

3차원의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metaverse)'는 요즘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가상현실(VR)보다 한 단계 진화한 개념으로 게임이나 가상 현실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유망 분야로 급부상하게 될 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AI 홈트레이닝 피트니스 기기를 개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전북대는 과기정통부(장관 임혜숙)와 과학기술인재진흥원(원장 신경호)이 주관하는 2021년 공공연구성과 BIC선도모델 구축 사업의 1단계 지식클러스터 PLUS 사업에 선정돼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대 산학협력단, (주)휴먼피트니스랩, (주)조인트리, 특화된 인력, (주)리카인베스트먼트, (재)광주테크노파크, (주)전북대학교 기술주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음악성 및 운동성 증진을 위한 차세대 디지털 메타버스 기반 AI 홈트레이닝 피트니스 기기를 개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2단계 지역혁신 BIC 선도모델에서는 전북대 권대규 교수 연구팀의 동작인식기반 동작 하네스 재활 훈련 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인 형태의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벤처캐피탈과 액셀러레이터로 구성된 과학기술인합동조합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일상 활용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 설립 준비 중인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인은 동작 인식 기반 동작 하네스



재활 훈련 시스템 기술을 디지털 피트니스와 운동처방에 적용해 비대면 시대에 집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홈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의 동작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메타버스 가상현실도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 제2호 대학창업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통해 초기 사업과 자금을 확보하는 구체적 계획도 진행되고 있어 R&D 고도화 및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진행이 기대되고 있다.

책임을 맡은 권대규 교수(공대 바이오메디칼공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과 융·복합을 통한 지역 경제의 가시적 성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통한 기술이전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유의 기술 융합·창업생태계를 구축,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군산대·원광대 인권센터, 협력체계 구축 협약 체결

군산대학교 인권센터는 최근 원광대학교 인권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군산대 노기호 사회과학대학장 겸 인권센터장, 원광대 박흥진 인권센터 연구교수, 군산대 전지수 인권보호관, 양수연 전문상담원이 참석하였다.

협약의 주요 골자로는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홍보 및 인권증진 프로그램 공동참여 ▲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책 개발 협력 및 학술세미나 교류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관련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교 인권센터는 대학 모든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목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상호 발전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올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 호원대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교육 정상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 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6개 항목 13개 지표에 따른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3년 주기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부 정책이다.

호원대는 2018년도 2주기 '차별개선 대학 선정'에 이어 3주기 평가에서도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됨으로써 한층 강화된 대학혁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호원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받아 2022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강희성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육혁신과 산학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향후에도 “균질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여 혁신역량을 축적하고 이웃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대학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원광대

원광대학교는 교육부 주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원광대는 이번 진단으로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이 지원되는 136개의 일반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원광대는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 기반 강화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박병수 총장은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일심협력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학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결과 발표에 이어 미 선정된 대학의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를 거쳐 8월 최종 결과는 8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 전주대, 교직원 대상 NCS활동 직업교육지도사 자격과정 운영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교직원의 전문적인 진로·취업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NCS활동직업교육지도사 자격과정을 스타센터 은누리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NCS기반 채용이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진로·취업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이루어졌으며, ▲NCS기반 채용 프로세스의 이해, ▲NCS기반 직무분석/기업분석/경력지도, ▲NCS기반 진로상담 기법 등 5개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진로상담 역량 강화를 통한 재학생 진로 설계 및 취업 지도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교육 이수 후 필기시험을 통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기간자격인 NCS활동직업교육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여 진로취업 교과목 등 운영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교육으로 기관급 금융권 대기업 등 채용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NCS기반 채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변화된 채용환경에 대비한 취업지도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은성기자